

정리노트

주차	차시명	주요 훈련내용
1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관리	1. 직업병 종류 및 인정 2.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관리 사례
2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관리 안전보건표지	1. 안전보건표지란?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제작 3.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따른 올바른 설치 장소
3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관리	1. 재난·재해 개요 2.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대응
4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1	1. 감염성질환의 개요 2. 식수 및 식품매개 감염병 3. 사람간 접촉에 의한 감염병
	진행단계평가(중간고사)	사지선다형 10문항 출제
5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2	1. 성 접촉에 의한 감염병 2. 곤충매개 감염병 3. 인수 공통병 4.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6	소음 및 청력 관리	1. 청각기관 2.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3. 순음청력검사 4.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
7	휴먼에러 예방	1. 휴먼에러(Human Error) 본질과 정의 2. 휴먼에러 예방원칙 3.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면에러 예방대책
8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3. 유통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최종 평가(기말고사)	사지선다형/단답형 60문항

정리노트

1주차.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관리

1. 직업병의 종류 및 인정

1) 직업병이란?

(1) 직업병의 특성

-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질병과 구분하기가 어려움
- 노출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
-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킴
- 임상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함
-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음
- 보상과 관련이 있음 (질병이 심한 경우 혜택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익이 없음)

2) 발생요인

(1) 직업병 발생요인 인자별 분류

- 물리적 원인 :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광선, 작업자세, 열사병, 동상, 소음성난청, 진동신경염, 백내장, 각종 근골격계 질환
- 화학적 원인 :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진폐증
- 생물학적 원인 : 생물학적 요인, 실내공기 요염에 의한 기관지 질환
- 정신적 요인 : 스트레스, 과로

2. 직업병의 예방대책 및 관리사례

1) 직업병의 예방대책

- 유해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
- 주변의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요인도 제거해야 한다.

정리노트

(1) 발생원에 대한 대책

- 유해요인 발생 원천적 봉쇄 방법

공정의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배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었거나 소음,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계의 구입• 기존 기계에 안전장치의 부착, 생산공정에서 유해과정을 제거
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한 물질을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물질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방법
격리 또는 밀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한 작업공정을 격리 또는 밀폐함으로써 노출근로자를 최소화 하는 방법

(2) 전달과정에 대한 대책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

- 국소배기장치는 실험실 또는 납땜작업대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용접이나 분무작업시 설치되는 이동식이 있으며, 유해물질관리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
- 전체환기는 독성이 비교적 약한 유해화학 물질을 공기 중으로 희석 시킬 때 사용됨

- 습식법

- 제분, 굴착, 분쇄 등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시 사용

- 차폐물

- 소음, 방사선, 고열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 보호판, 방사판 등을 설치한

- 정리, 정돈, 청결

- 엎질러진 물질의 완전한 청소 등 청결유지 또한 중요한 관리방법 중의 하나

(3) 근로자에 대한 대책

- 개인보호구

- 다른 관리 방법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함
- 제공이 간단함
- 규격품사용, 적절한 사용방법지도, 보호구의 적절한 공급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행정적 조치

- 유해요인이나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목적
- 특정 유해요인에 감수성이 높은 근로자를 선별하여 재배치하거나, 유해성이 큰 작업장에서 교대근무 등의 행정적 관리를 의미함

정리노트

- 의학적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
-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이차 예방방법

- 보건교육

-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종류, 발생장소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교육
-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실시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높임

정리노트

2주차. 안전보건표지

1. 안전보건표지란?

- 내용 - 위험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 비상시 행동 지침 등
- 형식 : 그림·기호 및 글자 등
- 재해발생 위험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1)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제작·설치 및 사용
- 표지를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
- 눈에 잘 띠는 위치에 설치
- 부착된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
-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
- 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경우, 교체 설치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제작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1) 금지표지

-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냄(빨간색)
 -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차량통행금지 :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화기금지 :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 물체 이동금지 :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정리노트

(2) 경고표지

-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나타냄(노란색)

- 인화성물질 경고
- 산화성물질 경고
- 폭발성물질 경고
- 급성독성물질 경고
- 부식성물질 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고압전기 경고
- 매달린 물체 경고
- 낙하물 경고
- 고온 경고
- 저온 경고
- 몸균형 상실 경고
- 레이너광선 경고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함(파란색)

- 보안경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보안면 착용
- 안전모 착용
- 귀마개 착용
- 안전화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복 착용

정리노트

(4) 안내표지

-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주거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을 안내함
(녹색)
- 녹십자표지
 - 응급구호표지
 - 들깃
 - 세안장치
 - 비상용기구
 - 비상구
 - 좌측비상구
 - 우측비상구

(5) 관계자 외 출입금지

2)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 예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금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참고) 허용 오차범위 : 색상 ± 2 , 명도 ± 0.3 채도 ± 1 (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

3.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따른 올바른 설치 장소

- 표지가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것

정리노트

3주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관리

1.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관리

1)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 부상자(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는 재해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 보존
-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자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허위보고 혹은 은폐 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재난 발생 시 대응관리

1) 지진

(1)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흔들리는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함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함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가스 등을 차단함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끼야 함
- 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면 안됨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함
-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함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함
-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됨

정리노트

2) 강풍

(1) 강풍 관련 기상특보 발효기준

- 강풍 재난이란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상상태

(2) 강풍에 의한 재해 시 대응요령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함
- 설치부재를 견고하게 고정함
- 현장 안전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함
- 끊어지거나 늘어진 전선 등은 관계기관에 신고함
-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킴

※ 재난위험시설의 위험등급

- B급 :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사고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비상조치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검토, 비상경보통신체계

※ 사업장 내 비상조치의 기본 원칙

- 인적 손실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 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한다.
-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정한다.
- 비상조치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의 과태료 : 1500만 원 이하

정리노트

4주차.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1

1. 감염성질환의 개요

1) 감염과 전염병

- 감염 : 감염성 병원체가 사람이나 동물의 몸 속에서 증식하는 것

2) 감염성질환의 분류

구분	전염병
식수 및 식품 매개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비브리오 패혈증, 레지오넬라증, A형간염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전염병	급성 호흡기 감염, 인플루엔자, 수두, 무균성 뇌막염과 장바이러스 감염, 단순포진, 성홍열, 결핵, 한센병, B형, C형간염
성 접촉에 의한 전염병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 HSV,HPV
곤충매개 전염병	페스트, 말라리아, 황열, 뎅기열, 일본뇌염, 발진열
인수 공통병	탄저, 공수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B형간염

2. 식수 및 식품매개 감염병

1) 콜레라(Cholera)

- 콜레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1) 잠복기

- 6시간~5일(통상 24시간 이내)

(2) 증상

- 구토를 동반한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남
-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음
- 증세가 심한 경우 동반되기도 함

(3) 예방 및 관리 방법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 환자 격리조치, 오염원 제거를 위한 살균소독 조치

정리노트

- 2) 장티푸스(Typhoid fever)
- 3) 세균성 이질(Shigellosis, Bacillary dysentery)
- 4)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 5) A형 간염(Viral hepatitis A)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

(1) 전파경로

-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 전파
-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감염,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중독자),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으로 전파
- 환자를 통해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파
- 인구밀도가 높은 군인, 고아원, 탁아소 등에서 집단 발생

3.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전염병

- 1)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 2) 인플루엔자
- 3) 결핵(Tuberculosis)
 -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
 - 제3군 법정 전염병

(1) 빨병

- 세포면역이 작용하는 3~6주 후 대부분 자연치유됨
- 감염된 사람의 약 10%만 결핵 환자로 진단받게 됨

(2) 독감형 잠복기

- 5~65시간(평균 36시간)

정리노트

(3) 결핵 증상

- 전체 결핵의 80~90%가 폐결핵 형태로 발병

초기 결핵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여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전신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열 동반, 오한 無, 오후에 열이 나고, 야간에 식은 땀과 함께 열이 내림전신 쇠약감, 피로감, 식욕부진, 완만한 체중감소가 동반,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호흡기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마른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 점액성, 화농성 객담 동반개혈, 흉막성 흉통, 호흡곤란, 흉막 삽출 등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이 기침, 가래 등 호흡증상이 2~3주 이상 계속될 경우

4) B형 간염(Viral hepatitis B)

5) C형 간염(Viral hepatitis C)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

- 오염된 혈액이나 혈장제제에 의해 전염

- 오염된 바늘이나 주사기에 의해 전염

-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수직감염 등 비경구감염으로 전파

(1) 증상

급성 C형 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부분 증상이 경미함수혈에 의한 감염인 경우 70~80%가 무증상 감염감기몸살증세,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남
만성 C형 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급성 C형 간염 환자 중 약 80~9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20%가 간경변으로 진행증상이 없어 종합검진을 통해 감염사실이 발견만성피로감 간부전증, 문맥압 항진증과 같은 간경변증의 합병증이 첫 증상으로 발견

(2) 예방 방법

- C형 간염 예방의 유일한 방법은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

- 항체가 생기기 전 감염자나 보균자와의 성적 접촉 금지

- 약물남용 및 주사바늘 공유 금지

- 칫솔이나 면도기 공유 금지

- 침 맞기, 문식하기, 귀 뚫기 등을 완전 소독된 기구 사용

정리노트

5주차. 근로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2

1. 성 접촉에 의한 전염병

1)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으로 인해 CD4양성 T세포가 감소되면서 면역기능 저하되고 기회감염이 합병되는 질환

(1) 감염경로

- 일상생활 전파 : 성적접촉이 가장 흔한 감염경로, 신생아와 소아의 경우 모자간염, 공동 주사기사용, 수혈 등에 감염
- 작업적 전파 : 혈액은행의 임상병리사, 혈액 투석실 근무자, 응급자 근무자, 장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외과의사, 매춘부 등

(2) 증상

- 급성 감염기 : 노출행위 후 1개월 내외 독감증상
- 무증상기 : 평균 10년 정도 무증상
- 발병초기 : 지속적 설사, 몸무게 급감, 발열 등
- 발병기 : 에이즈 증상

(3) 예방 및 관리

-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체액 등을 취급 시 주의
- 올바르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 의료인은 환자혈액, 체액 등을 다룰 때 보호구 착용

2) 임질(Gonorrhea)

- 임균 감염에 의해 요도염, 자궁경부염 등을 일으키는 질환
- 잠복기 : 2~7일

(1) 전파경로

- 임질환자, 무증상 감염자와의 성접촉으로 전파
- 무증상 감염자(60%~80%) 비율이 높아 병의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증상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시 통증, 요도입구 발적 등)
- 여성 : 자궁경부염, 요도염 등의 증상

정리노트

(3) 예방 및 관리

- 무분별한 성관계를 피하고, 콘돔 사용
- 임질 치료는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
- 임균성 요도염, 평소와 다른 질 분비물 시, 병원치료 필요

3) 매독(Syphilis)

- 스피로해타파에 속하는 트리포네마 매독균 감염에 의한 성기 및 전신질환
- 잠복기 : 10일~3개월(평균 21일)

(1) 증상

1기 매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성하감(chancery)이 특징적 병변•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없는 구진이나 궤양 발생• 2~6주 후 자연 소실됨
2기 매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 6주~6개월 후 발생•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 림프절동대
3기 매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 뼈, 간등에 고무종 매독(gumma) 침범• 주로 상행 대동맥에 매독균 침범• 뇌혈관 매독, 진행마비 등의 신경매독 증상
잠복매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잠복 매독 : 감염 후 1년 이내의 시기로 감염성이 높음• 후기잠복 매독 : 감염 후 1년이 지난 시기
선천성매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개 임신 4개월 이후 감염 발생

(2) 예방 및 관리

- 임산부는 매독 혈청검사를 통해 선천성 매독 예방
- 무분별한 성생활 자제, 콘돔을 통한 후천성 매독 예방
- 발견 시 완전하게 치료, 상대방 추적으로 함께 치료

4)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2. 곤충매개 전염병

1) 말라리아(Malaria)

- Plasmodium 속에 속하는 원충감염에 의한 급성열성질환

정리노트

(1) 전파경로

- 열룩날개모기 속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면서 원충, 즉 포자소체를 주입하여 전파
- 수혈 등의 병원감염,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2) 증상

삼일열 말라리아 (vivax mal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태감과 서서히 상승하는 발열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두통, 구역, 설사 등 동반 가능 <p>※ 예방약 복용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증상이 없음</p>
열대열 말라리아 (falciparum mal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증상은 말라리아와 유사하며 72시간마다 주기적인 발열을 보이기도 하지만,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음, 오한, 기침, 설사 등의 증상 발생• 중증 증상 : 황달, 응고 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나 셈망, 혼수 등의 급성 뇌증 출현•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 즉시 치료 필요
난형열 말라리아 (ovale mal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일열형 말라리아• 말라리아와 유사한 증상을 보임• 5년까지도 재발 가능
사일열 말라리아 (malariae mal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일열 말라리아와 유사• 이를 동안 열이 없다가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 50년까지도 재발 가능

2)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3) 발진열(Murine typhus)

3. 인수 공통병

1) 브루셀라증(Brucellosis)

2)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3) 쯔쯔가무시병(Scrub typhus)

- Orientatsutsugamushi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질환

- 감염된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전파

- 6~18일 잠복기

정리노트

(1) 증상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는 가피(딱지)
- 심한두통, 발열, 오한 발생
- 발병 5일 후 발진이 몸통에 나타나서 팔다리로 반점상 구진의 형태로 번짐
- 국소성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비장비대가 나타남

(2) 발병 원인

- 농부 등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
- 성묘를 가는 추석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3) 예방 및 관리

- 유행지역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방충제를 발라 예방
- 작업 중 풀숲에 앉아 용변 금지
- 야외에서는 피부 노출을 줄이고, 보호구 사용
- 유행지역 내 제초작업으로 쥐 및 진드기 서식장소 제한
- 야외주차장 주변 및 제한된 장소에 살충제 살포

4) 신증후성 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 곤충매개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원칙

- 병원소 제거
- 전염력 감소 : 적절한 치료
- 병원소 격리
- 환경위생 : 소독, 매개곤충관리, 물의 정화,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식품위생 등
- 면역증강 : 예빵접종 및 예방약 투여

4.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1) 파상풍(Tetanus)

- 파상풍균이 생산하는 테타노스파스민 독소가 신경계를 침범
- 근육의 긴장성 연축을 일으키는 질환
- 흙,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 포자가 피부 상처를 통해 침투하여 전파
- 1일~수개월(평균 3~21일)

정리노트

(1) 증상

전신파상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장 흔한 형태처음에 입 주위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개구 불능 발생경직에 따른 통증을 전구증상으로 나타남복부강직 및 호흡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발생
국소파상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포가 침투한 부위에 국소 근육 긴장 발생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자연 회복의 경우가 많음전신파상풍의 전구증상으로 나타남
뇌 파상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추신경이 지배하는 안면신경, 외안근 등의 근육 마비 발생

2) 풍진(Rubella)

- 풍진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질환
- 공기매개감염, 직접 접촉, 수직감염으로 전파
- 14~21일(평균 16~18일)

(1) 증상

선천성 풍진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천성 백내장·녹내장, 선천성 심장기형, 선천성 청력소실, 풍진망막병증, 비장비대, 황달, 정신지체, 수막염, 뇌염 등을 보임
출생 후 감염된 풍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교적 가벼운 임상경과를 거치며 무증상 감염도 흔하게 나타남특징적으로 귀 뒤, 목 뒤, 후두부의 림프절의 통증을 동반하며 종대첫날은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 둘째 날은 성홍열의 발진과 비슷하고, 셋째 날은 사라짐발열, 피로, 결막염 등 발생

3) 유행성 이하선염(Mumps)

정리노트

6주차. 소음 및 청력 관리

1. 청각기관

1) 청각기관의 해부학적 구조

(1) 외이

- 귓바퀴, 외이도 및 고막으로 구성

구분	역할 및 특징
귓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귀의 보이는 부분으로 사람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름탄성연골로 골격을 이루고 얇은 피하조직으로 덮여있음집음역할
외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길이가 3~3.8 cm정도 되는 관 구조로, 끝부분은 중이와 외이가 나누어지는 고막에 붙어 있음귀지를 생산하는 귀지선과 작은 섬모들이 외이도 피부의 1/3에 위치 → 귀지는 외이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작은 입자를 막아주고, 외이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고막에 의해 한 쪽이 막힌 구조상의 특징으로 2,000~5,500 Hz 범위에서 공명이 생김
고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이도와 중이의 경계로서, 가로 9~10 mm, 세로 8~9 mm의 크기진주 및 회백색 타원형의 구조물로서 중앙 근처가 안쪽으로 약간 빨려 들어간 형태두드렸을 때 울리는 북처럼 소리에너지가 들어오면 진동시켜 중이에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과 중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2) 중이

- 내이의 골벽과 고막 사이에 위치한 약 1~2 mm의 용적을 가진 공간

- 측두골 안에서 6개의 벽이 오목렌즈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

구분	역할 및 특징
이소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체내에서 가장 작은 뼈로 고막과 난원창에 연결됨추골, 침골, 등골로 구성음압증강에 작용
유스타키 오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부압력과 중이 내의 압력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환기구의 역할고막이 팽팽하지 않고 느슨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정리노트

(3) 내이

- 청각신호 전달경로에서 대뇌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청신경으로 전달시키는 역할
- 평형감각기관의 수용기를 포함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
- 내부 구조는 미로 형태이며, 앞쪽으로부터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와우,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반규관으로 구분

구분	역할 및 특징
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이에서 증폭된 소리를 코티(Corti)기관 내에서 변환을 일으켜 청신경으로 전달• 원추형으로 2바퀴 반이 꼬여져 달팽이 껍질을 닮아 ‘달팽이관’이라고도 함• 청각기관에서 소리의 주파수를 구분하는 곳 → 인간의 가청음역 : 보통 20~20,000 Hz

2.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1) 직업성 난청

- 직업성 난청이란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난청

(1) 직업성 이질환의 주 증상

- 청력장애(소음성 난청)
- 이명
- 현훈(어지럼증)
- 이루
- 이통
- 안면신경마비
- 기타 두통, 이폐쇄감, 이소양증

2) 청력손실의 유형과 특성

(1)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의 유형

- 일시적인 청력손실(TTS)
 -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난청으로, 4,000~6,000 Hz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
 - 강렬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 약 2시간 이후부터 발생하며, 하루 작업이 끝날 때 20~30 dB의 청력손실 초래
 - 청신경세포의 피로현상으로서 회복되려면 정도에 따라서 12~24시간 소요
 - 가역적인 청력저하이나 영구적 소음성 난청의 경고신호로 볼 수 있음

정리노트

- 영구적인 청력손실(PTS)

- 하루 작업에서 충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며,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함
- 일시적인 청력손실이 반복되고 불완전한 회복상태가 계속되면 축적효과 때문에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발생함

- 음향성 외상(Acoustic trauma) 예기치 못한 기계음, 총포류의 폭발음이나 파열음으로 인해 125~135 dB 이상의 음압에 순간 또는 단시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 - 큰 소음 노출 직후부터 노출된 귀에 난청, 이명, 이폐감 등이 일어남 - 하루 작업에서 충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생

(2) 소음성 난청의 특성

-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 거의 항상 양측성임
- 농(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 dB, 고음한계는 약 75dB
- 소음노출 중단 시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율은 감소함
- 초기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 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
- 지속적인 소음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를
- 지속적인 소음노출이 단속적인 소음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함

3)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리의 강도와 크기
- 주파수
- 매일 노출되는 시간
- 총 작업시간
- 개인적 감수성

정리노트

3. 순음청력검사

1) 청력도

- 청력도(Audiogram)란 사람이 여러 가지 주파수별 음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최소의 청력도를 알아낸 결과들을 표준 채트 위에 기록한 것

4.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

1)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 그 근로자의 증상이 몇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2) 업무상 질병 인정의 필수 증상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정리노트

7주차. 휴먼에러 예방

1. 휴먼에러

– 휴먼에러(Human Error)란 시스템의 성능, 안전 또는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범위를 벗어 일련의 인간동작 중의 하나. 요구된 수행도로부터의 이탈

1) 휴먼에러 유형

(1) 신입자가 범하기 쉬운 휴먼에러 유형

-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선택하기 어려움
- 단기기억을 사용할 여유가 없음
- 기억량이 적고 확실치 않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음
- 자신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지 망설이게 됨
- 중요한 것에서 초점이 흐려짐
-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야 눈치챔
-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정신적 피로가 높아 실수를 쉽게 범하게 됨

2) 휴먼에러를 예방하는 7스텝

(1) 정리정돈

-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부품을 없애고 물건을 정해진 위치에 놓는 것이 휴먼에러를 없애는 기본임
- 모든 작업자가 설비의 관리방법을 함께 결정하고 사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2) 표준정비

- 작업순서를 명확히 하고 공구 사용방법을 표준화하는 것
- 정량화한 작업 표준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문서로 작성하고 수시로 눈에 익힘

(3) 교육과 훈련

- 일반적으로 생산현장은 작업자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다양한 방법의 훈련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고 활발한 소통으로 휴먼에러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좋음

정리노트

(4) 눈으로 보는 관리

- 휴면에러 방지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 등을 개시하는 것
- 작업장 내에 게시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인식
- 작업장의 상태, 작업자의 컨디션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5) 풀프루프 설치

- 조작순서를 착각하거나 고장이 있어도 위험한 상태가 될 만한 조작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킴
- 설비 조작법을 모르는 사용자가 잘못 조작해도 이것이 전체 고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
- Q-KYT시트 작성은 풀프루프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검토하기 전에 휴면에러의 요인을 찾기 위해 작성하는 것

(6) 관리자 관리

- 작업자의 능력과 성격에 따라 휴면에러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좌우
- 작업자 관리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휴면에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작업자의 집중력과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휴식시간과 근로 환경 등을 정비

(7) 일상 관리

- 일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휴면에러의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3가지 활동
→ 컨디션관리, 철저한 주지, 일상대책
- 휴면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공정, 발생공정, 대상작업자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
- Q-KYT시트 작성한 뒤 풀프루프 설치

※ 휴면에러 예방 원칙 : 훈련, 동기부여 캠페인, 작업자에 맞는 직무분석 및 인간공학적 설계

※ 개별적인 행동결과에 따른 분류 내용

- 생략 에러 : 필요한 작업 내지 단계를 수행하지 않은 에러
- 실행 에러 : 작업 내지 단계는 수행하였으나 잘못한 에러
- 과잉행동 에러 : 해서는 안될 불필요한 작업의 행동을 수행한 에러
- 시간에러 :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너무 빠르게 또는 너무 느리게 수행하였을 때 생긴 에러

정리노트

3) 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휴면에러 예방대책

(1) 중요착안점1. 이해하기 쉬운 작업표준 마련

- 운전보수 이상 조치 등 장치나 설비에 관계되는 모든 작업을 표준화해서 그 작업표준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
- 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순서대로 작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쉽도록 이해시키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함

(2) 중요착안점2. 인수인계 시 내용기록

- 업무인수인계는 주간작업으로부터 교대 작업 시 교체, 운전부문으로 부터 보전 부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정상, 비정상에 따른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인수인계가 필요함
-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메모지나 노트를 준비해서 간단한 문장, 도해 등을 기록해서 인수인계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3) 중요착안점3. 작업 시작 전 중요점 협의

-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업내용, 작업범위, 준비, 마음가짐 등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
- 작업 시 안전에 관해 중요한 점 등을 협의해서 작업의 중요성, 각자 건강 등 확인

(4) 중요착안점4. 작업 지시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 작업의 변경이나 이상사태가 발생할 때, 지시명령에 잘못이나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시명령서는 전원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지시받는 사람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함
- 비정상작업의 작업지시 명령서는 작업지시자, 감독자, 운전원 등의 확인란을 만들

(5) 중요착안점5. 보고·연락체계 강화

- 최근 화학 공장은 1인 작업이 주력인데 그 작업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음
- 세세한 보고, 연락, 의논이 가장 중요

정리노트

8주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음
 -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고려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tk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 작업시간 중 사고(산재법 시행규칙 제34조6)

- 사업장 내 작업 시간 중 작업,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상 필요적 부수행위 시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봄
- 담당 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 작업을 이탈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
- 업무가 재해를 발생시킬 만한 공동원인?

- 작업시간 외 사고(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 작업시간외 시간,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재해 불인정
- 사업주 관리의 시설 결함, 관리소홀 인한 재해 - 업무상 재해 인정
- 사업주의 시설물의 관리하자?
-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있었는가?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정리노트

- 휴게시간 중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2)

- 휴게시간 종료 후의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

- 출 · 퇴근 중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출 · 퇴근 중 : 취업장소 내로 들어오기 전 또는 근로관계를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이동 중인 상태
- 출 · 퇴근 중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음

- 출장 중의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6조)

- 전반의 출장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 자의적 행위, 사적 행위일 경우 - 업무 수행성 불인정
- 같은 행위 즈음에 발생한 재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행사 중 사고(산재법 시행규칙 제37조)

- 노무관리상 필요, 사업주의 적극적 · 구체적 지시로 참가
-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산재법 시행규칙 제38조)

- 재해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

-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등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뇌혈관 질환 · 심장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스트레스 과로 외상과 관련된 뇌질환의 범위

-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정신적 압박과 긴장요소)

- 신경성 구토, 본태성 고혈압, 과호흡 증후군, 편두통, 근긴장성 두통, 신경성 안면마비, 신경증, 자율신경 실조증, 신경증적 우울증, 기타 신경성 질환

정리노트

– 육체적 과로(육체적 요소)와 관련된 질병

-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질환 :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성 뇌증
- 약간 관련이 있는 질환 :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 거의 무관한 질환 : 종양, 간염, 퇴행성 질환, 선천성 질환

– 외상과 관련된 질병

- 경막상하 출혈, 뇌경색, 뇌연화증

2)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내용

–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과정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됨

3.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인정기준

(1) 근골격계 질환

- 원인 : 목 · 어깨 · 팔 · 팔꿈치 · 손목 · 손 등의 근육, 뼈(골격), 건, 인대, 신경, 혈관, 관절, 활액낭 등에 문제
- 질환 : 심한 충격, 사고 외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나 중량물을 취급, 진동,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작업과 연관되어 누적된 피로나 통증